

한국감정원

❖ **총괄 요약표**

평가 범주	지 표 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난이도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1) 전략기획 및 기관혁신	5	B0			
	(2) 국민평가			2		1.958
	(3) 정부 3.0			1.5		1.264
	(4) 경영정보공시 점검			1.5		1.500
	(5) 정부권장정책			5		5.000
	2. 업무효율					
	(1) 노동생산성			4		4.000
	(2) 자본생산성			4		3.589
	3. 조직, 인적자원 및 성과 관리	3	C			
	4.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1) 재무예산관리	3	B0			
	(2) 재무예산성과					
	㉞ 자기자본비율			3		1.877
	㉟ 영업이익률			3		3.000
	(4) 계량관리업무비			3		2.295
	5.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4	B0			
	㉞ 임금피크제 운영의 적절성	2	B+			
	(2) 총인건비 인상률			3		3.000
(3) 노사관리	3	B+				
주요 사업	1.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5	C			
	2. 부동산조사통계사업					
	(1) 실거래검증 가격정보 활용 성과			6	우수	6.000
	(2) GIS기반 정보구축 향상도			6	양호	5.400
	3. 공적평가사업					
	(1) 공적평가 유지 실적			5	우수	5.000
	(2) 공적평가 정확성 향상도			6	우수	5.561
	4. 가격공시사업					
	(1) 부동산 가격공시 공공데이터 활용 성과			7	양호	6.300
	5. 보상수탁사업					
(1) 보상 협의율 향상도			5	양호	3.836	
전체 합계		35		65		
가산점				1.0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1) 전략기획 및 기관혁신

- 기관은 전년도 경영실적평가 지적사항에 대하여 경영목표 도전성 제고, 감정평가 부문 민간이양 이후 청사진 제시, 경영전략 실천을 위한 인력·예산 중장기계획 수립,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절차의 체계화, 국정과제 이행력 확보를 위한 예산·인력배분의 체계화, 윤리경영 로드맵 작성 및 윤리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윤리경영 모니터링 및 환류장치 정비, 윤리경영 및 부패방지 시책 우수사례 벤치마킹 노력 강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화 노력,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시책 개선, 전자정보 보안 및 정보시스템 보안부문 개선 등의 조치를 이행하였다.
-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및 기능조정 완수에 맞추어 경영목표-전략목표-전략과제 등 중장기 경영전략 체계를 재설정함으로써 부동산 시장관리 전문기관으로의 전환 토대를 구축하였다. 4대 경영목표치의 도전성과 실행가능성의 조화를 도모하였으며,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코자 한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중장기 경영전략 체계와의 연계성 하에서 경영혁신을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화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PDCA 관점에서 중장기 경영전략 실행을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기관 기능조정 완료, 미래 성장동력 확보, 부동산 정보 허브기능 구축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 기관특성과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관계에 따라 가치창출 단계별로 이해관계자 분류, 공유장치 구축, 전담부서 지정 등을 통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 노력을 기울였고 기관 매출 증대,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입법 완료, 기관 역할 및 비전 이해도 제고 등의 성과를 거두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한편 국정과제

발굴과 실행 상의 유형화와 체계화를 기하여 자체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되나, 기관의 실행능력 판단, 우선순위 분석에 따른 과제 선정 등 제반 절차 이행의 객관성이 미흡하다. 또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자원배분의 구체성과 실행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요청된다.

- 윤리경영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윤리경영 모니터링 및 평가환류를 위한 노력이 주효하여 국민권익위 청렴도 조사결과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에서도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반부패 인프라 구축 등에서 큰 개선을 보여 윤리경영 노력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유관 기관과 윤리경영 우수사례를 공유·전파한 점이 인정되지만, 기관 업무의 성격상 윤리경영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기관으로부터의 벤치마킹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 리스크 분류, 부서 자율평가, 감사실의 점검으로 이루어지는 리스크 기반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고, 일상감사 사전 검토제도를 운영한 점이 인정되나, 현안과제의 위험요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컨설팅 감사를 강화하여 감사성과의 질을 제고할 여지가 있다.
- 민간부문 신규 일자리창출을 위한 과제 발굴 추진체계를 운영하여 부동산 정보 제공을 위한 민간파트너십 확대, 보상 및 신사업분야 투자발주를 통한 일자리 증대, 감정평가시장 민간이양에 따른 일자리 증대 등의 실적을 창출하였으나, 이는 2015년 감정평가시장 민간이양에 따라 일자리가 신규로 발생한 것에서 주로 기인하였으므로 지속적 창출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공헌활동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지역 업체에 부동산 정보 제공,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재능기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펀드 출연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금리인하 펀드에 추가 출연하여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은행 대출금리를 감면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 점이 긍정적이다.
-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계약규제 완화, 계약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 등의 공정거래 확립 노력이 있었으나, 아직 제한적인 부분에 그치고 있으므로 의식·관행·제도 전반에 걸친 보다 다양한 시책의 발굴이

바람직하다. 한편 중소기업감정평가법인에 대한 담보평가 참여, 보상수탁 평가의뢰 등 중소기업사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나 아직은 상생협력 관계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 동반성장 성과는 미흡한 수준이므로 중소기업사와의 성과공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의 추진이 요망된다.

-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진전에 맞추어 기관의 중장기 전략과제와 연계하여 녹색건축, 보상수탁사업, 가격공시사업 등 신성장동력 사업을 발굴하였으나,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 측면에서 볼 때 불확실성이 있으며,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적 자원 확보 및 투자계획이 미비하여 이행능력이 불투명하다. 또한 이 사업들이 공기업 본연의 사업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향후 자체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함이 요망된다. 신성장동력 사업의 추진을 위해 협력업소 네트워크 활용, 빅데이터 활용, 유관 기관 네트워크 협업 등으로 상시적 노력을 지속하였고, 특히 신성장동력 소재부족, 전담기구 미비 등 대응이슈 발생에 대하여 기관장의 선제적 준비 노력과 새로운 조직문화 구축으로 장애요인을 극복하였다.
- 기관은 기능조정 방안을 정부에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확정하고, 감정평가 선진화 3법 제정으로 기관의 기능조정을 완료하였으며, 전자동 회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단순반복 업무를 감소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력배치를 합리화하고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한 점이 인정되나, 과다한 감정평가 전문직의 경우 신규 사업에 따른 소요인력을 감안하여 재배치하고, 부분 감축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즉, 기능조정 및 신규 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증원 소요인원을 모바일 현장조사 앱 활용, 전자동 회계처리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프로세스 개선으로 자체 대체한 점이 인정되나, 직무분석에 기초하지 않아 개선의 효과가 명확치 않으며 인원감축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어 보다 적극적인 인력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 정부의 표준지 조사·평가기준 개정작업에 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선정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정부 재정을 절감케 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지가산정체계를

전면 개선케 하는 노력을 통해 재설계 관련 국가예산을 절감토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담보물건 시세확인시스템 개발, 거주자 보상금 사전 지급, 공동주택 관리정보 공개 확대 등 새로운 아이디어의 접목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질을 제고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정부 정책 및 경영환경을 반영한 정보보안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관리·물리·기술 측면에서 정보보안 시스템 및 바이오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전담조직 및 전문 인력을 적절히 설치·운영하였고, 규정개정 및 매뉴얼 작성 등으로 사이버 보안 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의 실적을 거두었다. 다만, 용역사업 참여인원 보안관리,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 재정비, 인터넷망과 업무망 분리의 안정화 등을 위한 지속적 관리강화 노력이 요망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전략기획 및 기관혁신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B⁰”로 평가한다.

(2) 국민평가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고객만족도×0.9 +국민체감도×0.1	지수 향상도	-	고객만족도 92.749 국민체감도 50.139	97.877	2	1.958

나. 평가내용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와 국민체감도 조사결과에 나타난 고객만족도와 국민체감도의 수준 및 개선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의 고객만족도 평점과 국민체감도 평점을 9:1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한 결과 1.958점을 득점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고객만족도 평점은 고객만족도 지수에 상대등급별 점수를 가산하여 산출하였으며, 평가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92.749점이며, 상대등급은 A등급으로 평점은 98.749점을 득점하였다.
- 국민체감도 평점은 국민체감도 지수로 산출하였으며, 평가년도 국민체감도 조사결과는 50.139점이며, 평점은 90.028점을 득점하였다.

라. 추세분석

- 고객 최우선 업무자세 확립, SNS 및 부동산정보 앱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등으로 고객만족도와 국민체감도 결과 모두 상승하였다.

(3) 정부 3.0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별도의 평가기준	목표부여	100	84.280%	84.280	1.500	1.264

나. 평가내용

- 행정자치부에서 기관의 정부3.0 추진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정부3.0 변화 관리 실적, 교육실적, 벤치마킹 확산, 국민맞춤 서비스 추진사례, 기관간 협업, 사전정보공표 운영노력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적을 산출한 결과 평점 84.280점을 기록하여 1.264점을 득점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정부3.0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한 결과 홍보 실적, 교육실적, 벤치마킹 확산, 맞춤형 서비스 등의 실적은 우수하였으나, 기관간 협업사례, 사전정보공표 운영노력도 실적은 다소 미흡하였다.

라. 추세분석

- 2015년 점수는 1.264점으로 2014년 1.275점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4) 경영정보공시 점검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별도의 평가기준	목표부여	100	100.000%	100.000	1.500	1.500

나. 평가내용

- 예·결산, 운영계획, 임원현황, 인건비 현황 등 주요 정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공시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지표로서 이에 따라 그 실적을 평가한 결과 한국감정원은 무벌점으로 우수공시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1.5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통합공시 37개 항목 중 주요 재무, 복리후생 관련 12개 항목(복리후생비, 취업규칙, 요약재무제표, 자본금및주주현황 등)에서 미공시·지연공시 등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

라. 추세분석

- 2014년에는 1.25점을 득점하였으나, 2015년에는 1.50점을 득점하여 0.25점 득점이 상승하였다.

(5) 정부권장정책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정부권장정책 평가방법	목표부여	100	100.000%	100.000	5	5.000

나. 평가내용

- 정부정책 사업 및 법령상 의무사항에 대한 기관의 이행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관계부처의 평가결과에 따라 실적을 산출한 바, 평점 100.000점을 기록하여 5.000점을 득점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 등 13개 항목 모두에서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지표명	평가방법	가중치	부처평가결과	득점
1.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	목표부여	0.500	100.000	0.500
2.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	목표부여	0.700	100.000	0.700
3. 장애인 의무 고용	목표부여	0.500	100.000	0.500
4.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목표부여	0.500	100.000	0.500
5. 중소기업제품 등 우선구매	목표부여	1.800	-	1.800
5-1. 중소기업 제품	목표부여	0.600	100.000	0.600
5-2. 기술개발 제품	목표부여	0.200	100.000	0.200
5-3. 여성기업 제품	목표부여	0.200	100.000	0.200
5-4.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목표부여	0.200	100.000	0.200
5-5. 중증장애인 생산품	목표부여	0.200	100.000	0.200
5-6.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목표부여	0.200	100.000	0.200
5-7. 녹색제품	목표부여	0.200	100.000	0.200
6.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목표부여	0.500	100.000	0.500
7.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 (LED조명 보급 포함)	목표부여	0.500	100.000	0.500
합 계		5.000		5.000

라. 추세분석

- 정부권장정책 이행률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은 연중 체계적인 실적 점검과 적극적인 채용 및 구매 추진으로 최초로 만점을 달성하여 전년 대비 실적치는 1.48%p 상승하였다.

② 업무효율

(1) 노동생산성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부가가치/평균인원 (백만원)	목표부여 (편차)	최고 : 117.168 최저 : 98.854	131.711	100.000	4	4.000

나. 평가내용

- 평균인원 대비 부가가치 창출 정도를 측정하여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평균인원 대비 부가가치를 목표부여(편차)로 평가하였다.
- 2015년도 노동생산성 실적치는 평균인원당 131.711백만원으로 평점 100점을 기록하여 4.000점을 득점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부가가치는 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과 인건비, 순금융비용, 임차료,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 등의 합으로 구성되며 영업이익 증가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19.5% 증가하였다.
- 평균인원은 청년 중심 일자리 창출 확대로 전년도 대비 5.6명 증가하였다.

라. 추세분석

- 노동생산성은 부가가치의 감소로 인하여 2012년과 2013년에는 다소 하락하다, 2014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 2015년도 노동생산성도 적극적인 신규수익원 발굴 및 고객 지향 업무자세 확립, 업무효율화 노력으로 전년도 대비 18.6% 상승하였다.

(2) 자본생산성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부가가치/총자산	목표부여 (편차)	최고 : 1.344 최저 : 0.863	1.283	89.732	4	3.589

나. 평가내용

- 총자산 대비 부가가치 창출정도를 측정하여 기관의 자본생산성 달성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총자산 대비 부가가치를 목표부여(편차)로 평가하였다.
- 2015년도 자본생산성 실적치는 1.283로 평점 89.732점을 기록하여 3.589점을 득점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부가가치는 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과 인건비, 순금융비용, 임차료,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 등의 합으로 구성되며 영업이익 증가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19.5% 증가하였다.
- 이익 증가로 인한 자본 증가로 평균 총자산은 전년도 대비 10.3% 증가하였다.

라. 추세분석

- 효율적인 자산 운용 노력으로 자본생산성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③ 조직, 인적자원 및 성과관리

- 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 관련 개인별 MBO 목표를 상호 공유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성과관리협의회를 신설하고 성과관리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인정된다. 하지만 직무역량 및 성과 등을 반영하여 핵심인재 선정 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의 반영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여성경력개발제도의 구축, 사업부서군의 계량지표 축소, 성과급에 대한 개인평가 반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의 실태를 분석하였으나 유형별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 한편 기관은 감사원으로부터 부장급 보직자에게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였고, 전문계약직 등 직원 채용 업무를 내부심사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여 부적정하게 운영하였으며, 정규직 전환자에 대하여 임의로 근무경력 산정을 하여 직·등급 결정이 부적정하며, 근로자 파견 용역 재계약도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관리자인 부장급 보직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개정하고, 전문계약직 채용을 인재연수부에서 주관하도록 개선하고, 정규직 전환자의 직·등급 및 근무경력 산정 관련 인사관리요강을 개정하고, 근로자 파견 용역 재계약 관련 기준을 제정한 조치 실적이 인정된다.
- 기관은 원장과 본부장의 전결권을 지속적으로 하향 위임하여 2013년 3.7%였던 원장과 본부장의 전결권은 2014년에는 3.1%, 또 2015년에는 3.0%로 감소하였고 실, 처, 부장의 전결권은 2013년 96.3%에서 2014년 96.9%, 2015년 96.8%로 증가하였다. 인력배분과 관련하여서는 회계업무 담당자의 인원을 감축하여 인력이 필요한 다른 부서로 배치한 실적이 인정되나 정보전산실이나 평가협력처 등의 직원을 모두 사업부서로 분류하고 있어, 사업부서 분류기준과 핵심인재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다수의 전문직 계약직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2015년에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전환 기준을 정립

하여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록 경력단절여성 4인을 시간선택제 직무로 채용하였지만, 경력단절여성에 대하여 시간선택제 외에도 가능한 직무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관은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의 실태분석을 하고 적극적으로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하여 노력하여 고졸자 채용, 여성인력 채용, 지역인재 채용 등이 2015년의 채용 목표를 달성한 실적이 인정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전년도 지적사항인 사회형평적 채용 관련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의 유연근무제 사용 비율은 전년도 66.9%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에도 2015년에 더욱 상승하여 67.3%를 달성하였으며, 유연근무제 유형도 시간제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집약근무형의 기존 4 유형에 원격근무인 스마트워크근무형을 추가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유연근무제 사용 신청이 수시로 사용 전일에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직상근자의 결재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전결권을 하향한 점은 바람직한 제도 변화로 평가된다.
- 기관의 1인당 교육예산이 증가하고 교육만족도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연간 교육인원이 종 3급 이상은 각 직급별로 증가한 반면, 종 4급 이하의 교육인원은 감소하고 있어 향후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기관이 자체 개발한 여성인재 리더십 과정에는 인재 양성과는 관련성이 약한 육아 관련 교육과 꽃꽂이 등 취미 교육,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 등이 포함되어 제시되고 있어 체계적으로 리더십 교육과정을 구축했다고 평가되지 않으며, 여성관리자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파악하여 관련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경력개발제도를 역량 중심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종합근무평가를 최초로 공개하였으며, 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근무평정 공정성 설문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필요 시 재평가를 수행하는 등의 제도 개선 실적이 인정되며, 평가제도 수용도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역대 최고점수인 82.6점을 달성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근무평가에 대한 설문 결과에 의존하여 4명이 직무정지되었다가 다시 보름 후

이상 없음이 확인되어 직무에 복귀한 것은 사실관계 확인 이전에 인사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다소 성급한 조치로 판단되어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개인별 MBO 목표를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목표공유회의 등을 실시하여 업적 평가의 목표를 합리화하고자 노력한 것과, 성과관리협의회 구성 시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외부위원에 대하여 실무회의 3회 및 사전미팅 1회 총 4회의 교육을 실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반직원의 성과급에 개인평가 결과도 일정 비율 반영하는 제도는 간부직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으며 2015년에 일반 비간부 직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도입되지 않아 향후 관련 제도의 도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C”로 평가한다.

4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1) 재무예산관리

- 기관은 중장기 경영계획과 재무계획의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전년도 지적에 대해서 중장기 경영계획을 바탕으로 재무이슈 도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재무예산계획 추진전략을 설정하는 중장기 경영계획과 재무예산계획의 연관성을 강화하는 개선 노력을 기울였음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SWOT 분석과 전략과제 도출 결과를 중장기 재무계획의 추진전략에 반영하여 내부역량과 외부환경에 부합하는 재무계획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추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관은 지표관리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과 중장기 재무예산계획 추진전략과 연계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 노력을 통해서 재무예산관리의 일관성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은 중장기 재무예산계획에서 구체적인 재무목표, 튼실한 수익구조 확립 및 재무건전성 유지로 지속가능 경영기반 강화, 총매출액 1600억원 영업이익 170억원 달성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실행력 강화를 위해서 재무지표를 검토하고 선정한 노력은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재무목표와 재무지표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중장기 재무예산계획 달성의 일관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지표관리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의 지표관리 목표인 지속가능한 건전한 재무구조 및 합리적 예산운용을 재무목표와 최대한 일관성 있게 통일시키고 성과지표인 부채비율, 유동비율, 총자산이익율 또한 재무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증가율과 최대한 일관성 있게 통일시키는 방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재무 시나리오 활용을 통해 부동산 경기 하락과 정부예산 축소, 고정비 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 시나리오 발생 시 대응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위기 상황 시 기관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긍정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긍정적, 중립적, 비관적 시나리오 수립을 통해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합리적 전략방향을 수립했다. 하지만 핵심변화 요인인 정부예산 안정적 확보, 선수기능의 수탁감정 평가, 기능조정, 고부가가치 신규 사업 개발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을 활용하여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핵심변화요인을 시나리오 상에서 반영, 미반영으로 설정하는 것 보다는 수치의 변화로 적용해서 상황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 활용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재무위험관리시스템을 통해 재무지표 모니터링으로 선제적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기인식 지표는 선행지표와 후행지표로 나누어 관리하고 위기단계는 주위, 경고, 위협으로 분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은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재무위험관리 대응체계와 방안에 있어서 경영악화 시나리오 발생 시 대응전략, 위기단계 및 대응방안과 일관성을 높여서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대응방안의 구체성을 향상시켜서 위기대응 매뉴얼에도 반영하는

추가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자금조달과 유동성문제 발생 시 대응방안 또한 구체성을 향상시켜서 위기대응 매뉴얼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한 재무위험을 재정립하고 체계적인 대응시스템 운영을 시행하고 있고 비상시 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기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전략적 대응체계를 확립했다. 또한 핵심 위험지표인 정책변화에 따른 예산감소, 영업수지 악화, 유동성관리 모니터링으로 지속적인 재무위험관리 강화 노력을 기울인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부동산시장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관의 특성상 부동산 시장 상황을 거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비상시 조직인 위기관리위원회와 시나리오 상의 심각 단계에 언급되는 기관장 중심의 비상경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역할 재수립을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보유자산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관리전략 수립을 통해 자산매각 유동성을 활용한 효율적 자산운용 노력 및 성과를 이루는 노력을 기울였다. 금융자산의 경우 금융상품 다변화로 고금리 금융상품 투자 확대 노력을 기울였고 업무유치와 연계한 효과적 자금 운용으로 중소기업 상생펀드 평가 수익 70억 증대를 달성했다. 그러나 보유자산 중 47.2%를 차지하는 유형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부서 간의 협업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실무단점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부서요구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편성했고 출장비, 용역비 등을 삭감하여 공시통계 10억, 공적평가 19억의 절감 성과를 달성한 노력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예산편성 및 배정이 전문가의 자문 보다는 의사결정을 부여하는 참여 보장으로 기관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관의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업투자심의위원회의 타당성 심의

시 기관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개발해서 정성적, 정량적 측면 모두 다 포함할 수 있는 종합적 지표를 활용하여 사업타당성 심의에 대한 객관성을 향상시키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추가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합리적인 경상경비 집행을 위한 노력으로 자발적 절감목표 및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경비 53억원 절감을 시현하고 IT를 통한 업무혁신으로 증원소요 흡수 및 인원감축으로 69억원을 절감하고 주유비 1억원을 절감한 노력과 성과는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2014년도 경상경비 예산절감실적액 43억원은 2015년도 예산편성에 실질적인 반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2015년 경상경비 예산편성규모는 2014년 495억원에서 2015년 563억원으로 증가했다. 예산편성 시 전년도 예산절감 실적액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 절감 노력이 합리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체계 구축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기관의 추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재무예산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B⁰”로 평가한다.

(2) 재무예산성과

㉠ 자기자본비율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자기자본/총자산	목표부여 (편차)	최고 : 0.816 최저 : 0.550	0.692	62.583	3	1.877

나. 평가내용

-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을 측정하여 기관의 재무건전성 및 평가 신용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을 목표부여(편차)로 평가하였다.
- 2015년도 자기자본비율 실적치는 0.692로 평점 62.583점을 기록하여 1.877점을 득점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전사적인 수익성 개선 및 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 영업수지가 전년도 대비 크게 개선(영업이익 90.6억 → 154.6억)되어 자기자본은 10.8% 증가하였다.
- 자기자본 증가와 더불어 영업활동 관련 부채(미지급금, 미지급법인세, 퇴직급여충당부채) 역시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총자산은 16.5% 증가함.

라. 추세분석

- 자기자본비율은 소유 부동산 운영방안 개선을 통한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 및 적극적인 부채 절감 노력으로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2015년에는 영업활동에 따른 부채증가로 자기자본비율이 0.036 (14년 대비 4.9% 감소) 감소하였다.

④ 영업이익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영업이익/매출액	목표부여 (편차)	최고 : 0.204 최저 : 0.077	0.215	100.000	3	3.000

나. 평가내용

-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측정하여 기관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판단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목표부여(편차)로 평가하였다.
- 2015년도 영업이익률 실적치는 0.215로 평점 100점을 기록하여 3.000점을 득점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전사적인 비용 절감 노력과 수익성 개선으로 손익계산서 상 영업이익은 전년도 90.6억원에서 154.6억으로 약71% 증가하였으며,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약60% 증가하였다.
- 공적평가 매출증가('14년 427억 → '15년 491억)와 녹색 및 에너지효율등급인정('14년 28억 → '15년 70억) 등 신규수행 업무의 매출 증가로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21% 증가하였다.

라. 추세분석

- 영업이익률은 2010년 0.171을 기록한 이후, 사적평가 민간이양 및 지방이전 관련 비용 발생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14년 영업수지가 크게 개선되면서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2015년에도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 약 60%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 상승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3) 계량관리업무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관리업무비/매출액	목표부여 (편차)	최고 : 0.256 최저 : 0.377	0.292	76.509	3	2.295

나. 평가내용

- 계량관리업무비는 기관의 관리업무비(경상경비) 운용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매출액 대비 관리업무비를 목표부여(편차)로 평가하였다
- 2015년도 계량관리업무비 실적치는 0.292로 평점 76.509점을 기록하여 2.295점을 득점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RTMS,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등 신규 사업 수행으로 인한 시스템 구축 등 용역비가 증가(84.5억 → 122.5억)하고, 조사업무 수행으로 여비교통비가 증가(85.1억 → 93.6억)하여 관리업무비가 전년도 대비 약 18.7% 증가하였다.
- 공적평가 매출 증가('14년 427억 → '15년 491억)와 녹색 및 에너지효율등급인정('14년 28억 → '15년 70억) 등 신규수행 업무의 매출 증가로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21% 증가하였다.

라. 추세분석

- 계량관리업무비는 지방이전으로 인한 비용 지출 등으로 2013년에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4년 효율적 자원배분과 전사적 비용 절감 노력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고, 2015년에도 신규수행업무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0.004 하락하여 감소추세를 유지하였다.

5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기관이 성과연봉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경영평가단 지적에 따라 간부직의 기본급 인상 재원 일부를 업적성과급으로 전환하여 간부직의 성과연봉 비중을 2014년 30%에서 2015년 32%로 확대한 부분은 성과주의 보수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로 인정된다. 또한, 간부직 기본연봉의 누적식 차등인상 체계를 잘 관리해 온 부분이나 성과연봉 차등폭을 간부직 2.7배, 비간부직 2배 수준으로 지속 유지한 부분은 성과연봉제 권고에 따른 적정 수준의 제도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보직 3급 이하 직원의 기본연봉을 연봉테이블에 따라 비누적적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보수규정 제5조 2항)은 성과주의 보수체계의 확대를 위해 기관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노력을 투여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 기관이 조직의 기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보직 중심의 직무급 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노동조합과 합의하고, 차등 직무등급의 개수를 기존 11개에서 19개로 확대함으로써 간부직 직무급 비중을 2014년 6%에서 2015년 11%로 확대하고 비간부직 직무급 비중을 2014년 1%에서 2015년 8%로 확대한 것은 직무가치에 따른 보상체계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한편, 기관은 자격급, 가족급, 중식대, 통근보조비 등과 같은 각종의 수당을 운용 중인데, 추가적인 수당 신설을 엄격히 금지해 온 점이나 직무급 중심의 임금 인상을 지향해 온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2011년에 간부직 중식대 및 통근보조비를 폐지한 것(보수규정 시행요강 제20조, 제22조) 외에 별다른 추가 조치가 없었다는 점, 그에 따라 수당의 종류와 비중이 고착 상태에 있다는 점 등에 착안한다면 보수체계의 단순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혁신경영회의, 노조 위원장과의 정기적인 단독면담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직원들과 비전을 공유하고 동시에 성과창출에 대한 실천의지와 자신감을 고양시킨 부분, 그에 따라 평가와 보상에 대한 직원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

승한 부분 등은 성과연봉제 확대와 개선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로 평가된다. 기관이 고졸자와 비정규직의 보수 및 복리후생 수준을 정규직의 그것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 진다(다만, 비정규직 중 일반계약직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 기념품 등을 따로 지급해 오지 아니하다가, 2016년 5월부터 일반계약직에 대해서도 이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한편, 복리후생제도의 형평성 개선 여부를 측정함에 있어서 조사대상자를 직원과 전문계약직에만 국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분적 이나마 이를 전체 직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정규직의 1인당 복리후생비로 2014년에 4,609천원을 집행하였는데, 2015년에는 3,864천원을 집행함으로써 전년 대비 745천원을 감축하였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기준). 인건비 대비 복리후생비 비율도 2014년 6.27%에서 2015년 4.90%로 그 수준이 축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기관은 문화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등 각종 비금전적 복리후생제도를 활용하여 복리후생 축소로 인한 직원들의 상실감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는데, 연차휴가와 보상휴가를 혼합하여 1개월 이상의 장기휴가 사용을 돕겠다는 계획은 근속기간이 긴 직원에 대해서만 유용한 것이어서(장기근속자 장기휴가 사용지침 제2조) 다소 부족함이 있다 할 것이다. 기관은 복리후생 제도개선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직원 만족도 제고라는 관점에 착안하여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대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복무규정 위배로 인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의된 경우, 여론이 극히 불량하거나 기타 징계사유로 조사대상이 된 경우에 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기준과 다른 휴직사유를 정하고 있는 부분(지부단협 제22조, 복무규정 제44조), 기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청원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부분(복무규정 제30조)이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부분(복무규정 제33조), 일정한 경우에 업무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인병휴가 기간을 통산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있는 부분(복무규정 제31조)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 등 관련 정부지침을 참조하여 적정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육아휴직 기간 3년 전체를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지부단협

제23조, 복무규정 제45조), 기관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부분(복무규정 제26조),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의 사실이 없고 인병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에 한하여 연차휴가일수를 1일 더 부여하도록 한 부분(복무규정 제29조) 등도 관련 정부지침에 유의하여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퇴직자에 대해서 그 퇴직 월의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그 달의 기본연봉을 전액 지급하도록 한 부분(보수규정 제20조)은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하여 운용상 유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 판단된다. 한편, 2004년 인사규정 개정을 통하여 대기발령제도를 폐지하였음에도 대기발령자 및 정년대기발령자에 대한 급여지급 기준 내지 근거를 존치시키고 있는 것(보수규정 제26조)은 불필요한 분쟁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적절한 시정이 요청된다 하겠다.

- 기관은 과거 임금피크제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새로운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위하여 2015년 8월에 노사합의 및 이사회 의결을 하였다. 기관은 기존 58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2015년 7월에 도입하기로 합의하였으며, 3년간 피크임금의 80%, 70%, 5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제외 대상자 없이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신규채용 인건비 충당율은 2016년 상반기 727% 수준이며, 이후에도 향후 5년간 재원 충당율이 100%를 초과하고 있어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변화를 반영하는 임금체계로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별도정원을 설정하고 별도직무에 대한 직무정의를 마련하였으며, 년도별 종합교육계획에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다만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직무배치 및 관리, 이에 대한 전환교육 계획 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퇴직금 규정과 퇴직금규정시행요강에 별도 중간정산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없지만, 명예퇴직 기간을 임금피크제 시작일 1개월 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전환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된다.
- 기관은 과거 임금피크제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새로운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위하여 2015년 8월에 노사합의 및 이사회 의결을 하였다. 기관은

기존 58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2015년 7월에 도입하기로 합의하였으며, 3년간 피크임금의 80%, 70%, 5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제외 대상자 없이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신규채용 인건비 충당율은 2016년 상반기 727% 수준이며, 이후에도 향후 5년간 재원 충당율이 100%를 초과하고 있어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변화를 반영하는 임금체계로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별도정원을 설정하고 별도직무에 대한 직무정의를 마련하였으며, 연도별 종합교육계획에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다만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직무배치 및 관리, 이에 대한 전환교육 계획 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퇴직금 규정과 퇴직금규정시행요강에 별도 중간정산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없지만, 명예퇴직 기간을 임금피크제 시작일 1개월 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전환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보수 및 복리후생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B⁰” (임금피크제 운영의 적절성은 “B+”)로 평가한다.

(2) 총인건비 인상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실적년도 인건비 인상폭/ 전년도 총인건비	목표부여	5.9%	4.21%	100.000	3	3.000

나. 평가내용

- 총인건비 인상률은 정부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전년도 총인건비 대비 실적년도 인건비 인상폭을 목표부여로 평가하였다.
- 2015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 5.9%보다 낮은 4.21%의 인상률을 기록

하여 100점을 득점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연중 체계적인 급여 및 복리후생비 관리,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수체계를 운영한 결과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 5.9%에 미달하는 4.21%의 인상률을 기록함(기관은 2009년 인건비 5% 삭감 기관으로 총인건비 가이드라인 3.8%에 2.1%를 가산한 5.9%를 상한선으로 적용함)으로써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지침을 준수하였다.

라. 추세분석

- 기관은 지속적으로 인건비 인상률 통제를 통하여 최근 6년간 정부 인건비 인상률 지침을 100% 준수하고 있다.

(3) 노사관리

- 기관이 감정평가 선진화 시책 및 그에 따른 공적역할 강화, 공공부문 경영효율화에 대한 대내외 관심 고조, 노동조합 상급단체의 강경한 대정부 투쟁 등의 상황 아래에서 정부정책과 경영여건을 참고하여 SWOT 분석을 실시, 전년도 노사비전을 일부 수정하고 그에 따른 전략방향을 설정하여 4대 핵심가치 및 16개 주요 전략과제를 도출한 것은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충실한 SWOT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과제 도출할 필요)에 대한 개선조치로 이해된다. 기관은 노사관계 전략 수립 시 실행과제와 성과지표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에 따라 신뢰·소통·협력·합리라는 4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노사전략을 재수립하고 그에 따른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일부 성과지표의 경우에는 여전히 실행과제를 측정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거나 결과값이 어느 정도 예측되어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인바, 가치나 과제의 달성 여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설정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기관이 노사관계 선진화 전략 수립에 즈음하여 사내 인사노무전문가 그룹

‘노사랑’을 활용하여 전략 전반을 집중 검토한 것과 외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공유한 것은 대내외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전략 수립 및 전개로 보여 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노사전략에 대한 이해도와 노사관계 인식수준을 측정한 것은 내부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전략 수립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다만, 노사관계 선진화 전략 수립 시 활용된 외부 전문가의 역할은 정부정책의 전달이나 기관간 정보 공유에 치우쳐 있어 그 내용면에서 다소 제한적이었다고 할 것인바, 성과지표 구축이나 지표별 목표치 부여와 같이 상대적으로 전문성 내지 객관성이 요구되는 영역에 대하여도 외부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노사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에 따라, 일일 실무협의회-노사 주간협의회-노사대표간담회-노사협의회로 이어지는 4단계 노사갈등 사전예방 프로세스를 구축·운영한 사실이 있는데, 특히 노사 양측 간부 각 2명으로 구성된 일일 실무협의회의 적극적인 상시 운영을 통하여 노사갈등의 발생 요인을 최소화한 부분과 이를 통하여 비교적 초기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부분은 노사갈등 사전 예방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긍정적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에 따라, 핵심위험지표를 설정하고 각 단계별 조치사항을 제시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구축하였으나,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내용을 경계 또는 심각 단계에서는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다가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후에야 비로소 그 조치사항으로서 이를 언급한 것은 현행 노동관계법령의 내용과도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기관리의 적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이 노동조합 간부를 필수위원으로 하는 ‘일 확 줄이기 TFT’를 구성하여 노동강도 해소를 위한 각종 제안들을 노동조합과 공유하고, 즉각적인 노사합의를 통하여 상비군 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PC-OFF제도,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의 조치들을 실행에 옮긴 것은 노사협력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또한, 공적기능 강화에 대응한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청렴운

리기관 달성'과 같은 윤리경영전략 과제를 노사 공동으로 설정한 부분, 직원 윤리의식 고양을 위한 상별규정 강화에 노사가 협력한 부분,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통해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달성하고 대통령상을 수상한 부분은 노사가 공통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협력함으로써 구체적 성과를 도출한 사례라고 평가된다.

- 기관이 전년도 경영평가단의 지적에 따라 경영진과 직원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혁신경영회의'와 '한벗회'를 신설하고 '찾아가는 경영현안 설명회'와 같은 기존 소통채널을 확대한 것은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인정된다. 또한 '청년이사회'와 '주제별 공부모임'을 통하여 직원들의 생각과 의견을 기관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 부분은 상향식 소통채널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다만, '청년이사회'의 경우에는 그 참여자가 주로 종합직 4·5급 직원들이라는 점과 소통의 주제 또한 경영현안이나 직무 관련 사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을 포함한 전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데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통한 노사간 공감대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다양한 소통채널을 개발·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이 1·2급 간부에 대하여 기본적인 노무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집체교육(경영성과 점검회의 참석자 80여명을 대상으로 2015년 9월 7일 기관 본사에서 1시간 30분 동안 실시하였다)을 실시한 것과 고급관리자의 전문역량 강화 차원에서 갈등관리, 교섭 및 협상역량 강화를 위한 대외기관 위탁연수를 실시한 것은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인정된다. 다만, 일반 상급관리자에 대한 노무관리 기초교육은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일회성 행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를 계획·제도화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며, 사내 인사노무 전문가 그룹인 '노사랑'을 이 교육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할 것이다. 기관은 노무담당자-고급관리자-중간관리자-전직원으로 교육대상을 구분하고 각 교육대상별 필요역량을 제시하여 그에 맞는 노사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설계·운영 중인데, 관련 교육프로그램 설계 시 기관의 HRD 체계에 부합하도록 공통역량, 리더십역량, 직무역량 등 각 역량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개인별 경력개발경로에 따른 내부전문가 양성 체계를 구축해 둘 필요도 있을 것이다.

- 기관이 2015년 7월 30일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하여 임금조정기간을 3년으로 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조기 도입한 것과 같은 해 11월 정부 지침에 따른 임금 인상기준을 준수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단체협약의 합리성 확보에 관한 노력과 성과로 평가된다. 다만, 휴직사유를 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규정(지부단협 제22조 등)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이나 예산집행지침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또한, 형사상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나 휴직의 명을 받은 자가 허가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을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지부단협 제24조 4호 내지 5호, 한편 동조 1호 내지 3호가 제시하고 있는 사유는 사직, 정년퇴직 및 당사자 소멸에 의한 근로관계 당연 종료사유이다)은 단체협약을 통해 기관의 인사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사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B+”로 평가한다.

2 주요사업

①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 기관은 부동산 조사통계사업, 공적평가사업, 가격공시사업, 보상수탁사업 등 4개의 사업을 2014년도와 동일하게 추진하였다. 부동산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 지원 등을 위한 조사·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한다는 기관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2015년 정확한 부동산 정보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미션으로 설정하고 ‘세계최고의 부동산 조사·평가·통계 전문기관으로 성장’이라는 비전을 위하여 5대 핵심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4가지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 2014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비계량 성과 평가를 자체평가시스템과 내·외부 전문가회의 등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를 2015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기관의 감정평가 업자로서의 지위 배제와 함께 감정평가업계의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기준을 수립하는 등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된다. 공적평가사업 철수 예정에 따라 조사통계사업, 가격공시사업, 보상수탁사업에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운 성과지표를 신설하고 기존의 성과지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높은 달성률을 이룬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향후 가격공시사업의 새로운 지표 설정에 있어서 성과를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표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공적평가사업 철수에 따른 지도감독 기능 강화, 감정평가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민간부문과의 협업 강화 노력이 필요하며, 원활한 수익 창출을 위한 주요사업의 조정·강화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 기관은 주요사업별 계량지표를 중장기 경영전략 및 5대 핵심 전략과제와 연계하여 기관의 미션인 정확한 부동산 정보제공을 대표할 수 있는 산출지표

와 결과지표를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지표의 정의에 부합되도록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전년도에 이어 일부 지표에서는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추후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하여 장기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도전적인 목표 수준을 설정하고 도전적인 성과목표 달성을 위하여 보다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 부동산 조사통계사업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기관은 중장기 계획과 전략목표에 근거하여 ‘부동산 시장 선진화 및 정보 허브 역할 강화’라는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주택 통계의 신뢰성 강화, 토지 및 상업용 부동산 통계의 활용성 제고, 부동산정보 생산·제공 고도화의 성과목표를 제시하였다. 합당한 지표 개발 및 선정을 위하여 성과지표 Pool에 있는 다양한 성과지표를 중요도, 측정가능성, 달성가능성, 연관성, 시급성을 기준으로 핵심 성과지표를 구성하는 등 기관의 비전, 중장기 전략목표, 성과지표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유기적인 성과지표 개발을 통한 월세·준월세·준전세의 월세통계 세분화, 지가변동률 공표지역 및 상업용 임대동향 공표상권 확대 등 주택·토지·상업용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을 개선하고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주택, 토지, 상업용의 유형별 통계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기존의 통계 사업을 주택 통계사업과 토지 및 상업용 통계사업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주택 통계의 신뢰성 강화, 토지 및 상업용 부동산 통계의 활용성 제고, 부동산정보 생산·제공 고도화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하여 통계 사업을 확장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성과달성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예산을 74억 원 확대하고 22명의 추가 인력을 배정하는 등 소요 인력과 예산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된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전년도 대비 증가한 5,400여 개 공인중개업소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 사항인 협력공인중개업소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와 입력정보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부동산 시장동향 모니터링 시스템의 입력률에 따라 협력업체의 실질적 도움이 되는 물품을 차등 지급하는 인센티브 확대 지급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모니터링 시스템 입력률이 2014년 51%에서 2015년 70%로 대폭 상승하여 주택동향조사의 가격 검증이 강화되었고, 통계청 품질진단 우수를 획득하였다. 또한 협력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정부 정책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정부 정책 방향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기관은 새로운 부동산거래의 시장 동향에 부응하여 지가변동률 산정체계의 공표지역을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세분화하고 표본의 교체 없이 용도지역을 수정하도록 조사·평가 규정을 개선하였으며 국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 통계의 활용성 제고와 상가권리금 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서울시 골목상권 분석서비스와 연계된 소규모 상가의 정보를 개방하여 다양한 통계 자료를 제공 및 활용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기관이 생산하고 있는 세분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KAB시장분석보고서 및 KAB Office Report를 창간하고 국내·외 기관에 배부함으로써 조사·통계 자료의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한 기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상가권리금 현황조사 도입과 관련하여 T/F 구성, 조사 시스템 구축, 전문역량 강화교육 등 단계적 사전준비를 통하여 조사제도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조사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상가전문 네트워크 구성 및 나이스평가정보와의 MOU를 체결하는 등 권리금의 음성적인 특성으로 인한 통계 자료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한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상가 권리금 조사 및 분석결과를 서울시 및 6대 광역시 등 주요도시 중심으로 우선 도입하여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전국 단위

확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미흡하므로, 추후 상가권리금 현황조사 및 분석 결과를 전국 단위로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부동산 정보 생산·제공 고도화를 위하여 전년도 개발된 모바일 앱에 대한 다양한 내·외부의 의견을 수집·반영하여 다양한 부동산 콘텐츠를 강화하였다. 특히 부동산 시장정보 앱 고도화를 통해 일 최대 76만 건의 이용자 증대 등 공공기관 앱으로 이례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동산 거래 업체인 직방에 데이터 연계를 통하여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정보 제공 채널을 다각화하는 등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노력으로 다양한 부동산 통계 자료의 홍보효과 극대화 및 One-stop 종합 부동산 서비스 구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바람직하게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부동산 DB와 관리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무결점 정보제공 체계 구축을 목표로 정보화 조직을 신설하고 건물에너지, 실거래관리, 리츠 등 정부위탁 시스템의 집중관리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해킹위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업무 단말기에 MDM(보안관리) 도입, 모바일 업무 시스템에 안면, 지문 인증 시스템 도입, 업무시스템 공인인증서 도입 등 전반적인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였다.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최초로 네트워크와 인터넷 망 분리를 완료하였으며, CCTV의 USB 포트를 차단하는 등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측면의 이중 정보 보안체계 강화 노력이 인정된다.

③ 주요사업별 비계량적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은 부동산시장 선진화 및 정보 허브역할 강화를 중장기 전략목표로 선정하고 부동산 정보의 생산·제공 고도화를 위한 무결점 정보제공 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측면의 보안체계를 완성하였다. 또한 2014년 부동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용역 업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 및 근무처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지

지 않았지만, 15년도에는 용역 업체의 적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자 입찰제안서에 진위여부 검증에 위한 근거를 명시화하였다. 다만 계약 내용의 진위여부만을 검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용역 업체 및 기술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 가이드라인 제시 등 철저한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기관의 노력이 요구된다.

- 주택 통계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월세전환율을 대폭 개선하고 월세 통계를 월세·준월세·준전세로 세분화하였으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자체 보유 DB를 개선하고 통계적인 모형 예측을 도입하여 타 기관 대비 전망치와 실적치의 오차를 최소화 하였다. 다만 그리스 디폴트 및 미금리인상 등 대외여건 변화의 조짐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여 주택거래량 전반기 전망치와 후반기 전망치의 차이가 11%p 발생하고 국회 지적을 받는 등 주택 시장 전망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국외 여건의 변화를 면밀히 추적하고 분석하여 조사통계의 정확도 및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2015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환류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2016년 환류계획은 개선점에 대한 구체적인 환류 계획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글로벌 부동산 전문기관으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KAB시장분석보고서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13개국 102개 기관에 배포하고, KAB Office Report를 창간하여 13개국 해외 투자기관에 배포한 성과에 대하여 2016년 보고서 고도화를 위한 환류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 계획 및 체계의 부재로 인하여 보고서 고도화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보고서의 배포 수량, 이용자 만족도 파악 등 배포된 보고서의 활용도, 개선점 등의 피드백을 위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및 피드백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공적평가사업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공적평가사업은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장기적인 중요성 및 로드맵을 고려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왔고, 전년도 지적에 따라 지사파견, T/F 구성 등 유연한 인력관리를 실시하였다. 다만 앞으로 해당 사업의 철수 예정으로 기존 인력의 이동이 불가피하고 수익감소가 예상됨으로 공적평가 인력의 효율적인 분배 및 전문성을 유지하여 국회에서 지적된 기관 전체 직원 1인당 순이익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력 배분 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업무 이동에 따른 인력 공백 및 전문성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동 전 새로운 업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중장기 계획과 전략목표에 근거하여 ‘부동산 시장 선진화,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정보 허브 역할 강화’라는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공적평가 수익성 증대, 감정평가업계 대국민 신뢰성 강화, 신규분야 개척을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라는 성과목표를 제시하였다. 공적감정평가사업의 철수가 예정된 상황에서 전년도 피드백 분석 및 SWOT 분석을 통하여 전년도 공적평가사업에 포함되었던 녹색건축 관련 인증 사업을 신성장동력 확보 사업으로 전환하여 전년 대비 140%의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인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보상평가검토 및 타당성 조사 실적의 증가율을 각각 30%, 23% 증가된 목표 설정을 통하여 감정평가시장의 지도감독기관으로서 당위성 확보 및 기능 수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된다.
- 녹색건축 및 에너지 평가 관련 인증업무는 공적평가 철수에 따른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의 성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업무로서 인증 실적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국민의 인식 확산, 녹색건축 인증의 중요성, 홍보 강화 등 저변확대를 위한

여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단순히 글로벌 벤치마킹 대상의 성장률 비교를 통한 평가에서 벗어나 외국 기관들이 업무 기반을 만들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분석하여 목표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체 시장 확대 및 수익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감정평가시장의 과다 경쟁 및 부동산 침체로 인한 대규모 공익사업 감소의 환경변화 속에서도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업무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사상 최대 매출을 실현하였다. 유관기관 전담제, 업무 지원 T/F 등의 효율적인 인력 배분을 통하여 유관기관 260개의 상세 정보를 구축하였고 면밀한 지원을 통해 전년 동기 대비 11.2% 상승한 의뢰건수를 달성하였으며 실시간으로 진행상황을 파악하는 감정평가 열람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특히 중단 예정인 감정평가 수익을 대체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시세 정보 제공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최대 수익 사업 폐지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 점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공적감정평가 철수에 따른 480억 원의 안정적인 대체수익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공시·통계, 보상수탁, 녹색건축 및 신규 담보대출 건전성 강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부동산 침체 속에서 예상 수익을 낙관적으로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부동산 공시의 경우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수익이 하락하여 210억 원의 실적을 올린데 반면 예상 실적은 356억 원으로 반등하였으며, 보상수탁 사업 또한 전년도 144억 원에서 금년 145억 원 성장에 비하여 예상실적은 190억 원으로 높은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다. 향후 대체수익기반의 예상 수익을 산정하는데 있어 보수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하고 부동산 시장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리스크관리 계획 수립을 통하여 예상치 못한 수익 감소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기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기관이 감정평가시장에서 부적절한 감정평가의 지도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관의 위상을 정의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감정평가시장을 유지하고자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및 기준을 수립하였다. 특히 보상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표본기준가격조사 업무를 확대하고 정확한 토지보상비 추정 방법 및 심사체계를 강화한 점, 외국의 다양한 기관을 벤치마킹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보상평가 검토제도 및 감정평가 세부평가기준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수립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대규모 감정평가 업무의 지도감독 기능에 그치지 않고 상가 권리금 감정평가 세부기준을 따로 명시하여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된다.
- 신규 분야 개척 및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녹색건축 및 에너지평가 관련 인증사업 역량확보를 위한 고객전담제 실시, 서비스이행 표준제정, 온라인시스템 고도화 등 차별화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녹색건축 인증업무량 증가에 대비하여 결로방지평가 2명, 친환경주택평가검토 1명을 확충하였다. 그러나 전년 대비 녹색건축 인증건수 중 결로방지성능평가는 45건에 그치고 있으며 친환경주택평가의 경우 전년 대비 약 45%인 226건이 성장하여,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적절한 인력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주택평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의 추가 확충이 필요하며 정확한 시장예측을 통한 중장기적인 인력 배분에 대한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기존 위탁운영기관에서 업무이관을 받아 사회문제로 부각된 아파트 관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신규 통계자료 및 관리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아파트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불공정한 입찰·계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입찰시스템을 무료로 운영하여 약 10억 원의 연간 입찰비용을 절감하고 입찰 비리를 조기에 방지함으로써 깨끗한 아파트 관리 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하였다. 특히 관리비 적정성, 에너지 효율성, 운영 투명성, 유지관리 적정성 등 4개의 관리품질 요인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관리품질 우수단지 선정사업을 진행하여 비

정상적인 관리관행을 없애고 건전하고 투명한 관리문화의 정착을 능동적으로 유도하고자 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③ 주요사업별 비계량적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대외적으로 공적감정평가 업무의 진행이 어려운 시장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기관이 설정한 공적평가 성과지표 중 시행 첫해인 금융기관 담보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 K-apt 정식이관 및 고도화 작업을 제외한 모든 성과지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특히 신규 수익사업인 공동주택 시세정보 제공사업은 목표 대비 22% 초과, 녹색건축 및 에너지평가 인증 사업의 전년 대비 152%, 목표 대비 4.6% 초과 달성 성과는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단일 사업으로 가장 큰 수익예상을 목표하고 있는 담보대출 건전성 강화 시스템의 경우 비교적 늦은 시기('15.11)에 시스템이 오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건 시세확인 시스템은 일평균 1,600건, 부동산가격정보 열람은 일평균 120건을 달성하고 다양한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추진한 노력이 인정된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공적평가와 관련된 기관의 성과를 경영성과점검회의 및 내·외부 자문평가를 통하여 자체평가 결과를 제도개선이나 성과관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경영평가단 및 국정감사를 통한 지적사항을 적절히 조치하여 성과를 도출하는 등 활발하게 환류 활동을 수행하였다. 다만 공공기관 MOU를 통한 기관의 당위성 강화, 주무부처와의 제도개선 노력, 타당성조사 수행, 감정평가 세부평가 기준 수립 및 책자발간 등 기관 내부의 시스템 및 관련 법안의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인해 민간협회와 대립관계가 형성되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환류 노력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기관의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관련 기관과의 면밀한 협력 및 이해가 동반되어야 부동산 시장의 빠른 안정화 및 시장 선도화가 가능한 만큼 민간협회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환류 활동을 이끌어 낼 필요성이 요구된다.

(3) 가격공시사업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기관은 중장기 계획과 전략목표에 근거하여 ‘부동산 시장 선진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실거래기반 공시제도 도입 확립, 부동산 공시업무 적정성·신뢰성 제고, 정보의 공유 및 개방이라는 성과목표를 제시하였다. 적정 지표 개발 및 선정을 위하여 성과지표 Pool에 있는 다양한 성과지표를 SMART 분석을 통하여 6개의 신규 성과지표를 포함한 8개의 지표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신규로 설정된 성과지표는 단일 연구·제도에 관하여 도입되어 있어 후속 지표와의 연속적인 성과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신규 성과지표의 성과가 단일 연구·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리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기관은 세계최고수준의 글로벌 과표산정기관으로 도약하고자 IT기술을 바탕으로 실거래기반 공시제도 개발을 목표로 설정하고 국제과세관협회와 CCTA을 대상으로 글로벌 벤치마킹을 수행하였다. 실거래 기반 공시제도가 정착된 미국의 국제과세관협회의 공시가격 성과측정에 필요한 선진지표, 덴마크의 CCTA의 전산화된 정보공조체계 구축을 통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소통채널 운용 및 과표산정업무의 효율적 분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계량지표 관리 수준차이 및 양방향 소통의 효율성 GAP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도입 준비 중인 실거래기반 공시제도의 적절한 목표수준을 설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26년 된 지가공시제도의 고비용, 저효율을 기반으로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으며, 전년도에 실거래기반 공시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표준지 기본조사평가 제도를 최초 시행하여 당해연도에는 예산 절감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다. 감정평가업계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반대 태도에도 불구하고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임을 소명하는 등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IT 시스템을 활용한 대량조사체계 구축 및

인력운영 효율화를 통해 선진화된 공시업무 체계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가 상승률 고려가 미흡한 기존 기준을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이하”, “전체 표준지의 30% 이내” 두 가지로 구분하여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예산을 65억 원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한 노력이 인정된다.

- 연간 200만 건 이상의 실거래자료가 축적되는 공시업무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DB 운영과 데이터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선진 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였으며 국제과세관협회(IAAO) 국제컨퍼런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편중된 실거래 자료로 인한 실거래기반 공시제도 도입 장애를 해결하고자, 실거래자료가 희박한 지역의 거래가격을 동일 시군구, 용도지역, 이용상황, 가격권을 묶어 분석하는 유사가격권 및 표준지 분포 최적화 연구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전국 3,200만 필지에 50만 표준지를 골고루 분포하도록 하기 위하여 1,300명의 전문가 데이터를 확보 분석하여 표준지의 적정성을 판단하였고, 유사가격권 연구의 실무적용을 통하여 샘플의 가격현실화 수준을 82%까지 향상시키는 등 빠른 실무적용 연구를 진행한 점 또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공시가격 생산은 전산화된 정보공조체계 구축을 통한 기관 및 지자체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수행되고 과표산정업무의 효율적 분담이 이루어져야만 가격산정주체의 차이로 발생하는 가격불균형 및 산정방식의 비일관성 문제가 해결되어 질적으로 우수한 정보의 생산이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기관은 252개 지자체와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하여 홈페이지 내 공무원 온라인 전용 공간을 구축하여 전문상담인력 배치, 관련법령, 정부지침, 공공 DB 활용, 앱 활용법 및 E-book을 수록하는 등 업무효율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전용공간 구축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 결과는 127명으로 나타나 온라인 전용공간 활성화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공무원 전용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및 홍보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세계최고수준의 공시가격 산정체계 구축을 위한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군사시설·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부족 등의 장애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대구·경북권 공공기관 단독으로 ‘무인비행장치 활용 안전성검증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경북대와 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존 조사된 개별지 토지특성과 드론을 활용한 사진 촬영 데이터를 비교·분석함으로써 100% 일치의 성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기존 인력 현장조사로는 파악이 불가능하였던 지역 및 고도, 경사도 등의 입체적 정보를 획득하였으며 조사시간이 1필지당 평균 1분이 소요되는 등 공시가격 생산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한 노력이 인정된다.
- 10년간 지속적인 개선 노력으로 체계적인 공동주택 공시 DB를 생산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완성·운영하고, 최근 6년간 통계청 주택센서스 DB와 99% 이상의 일치율을 유지하는 등 완벽에 가까운 DB 정확성을 검증받았다. 또한 생산된 공동주택 DB를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에 등록함으로써 국가예산 1,400억 원의 절감을 이끌어낸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공동주택 공시 DB 생산 프로세스는 통계청의 지속적인 예산 절감 효과뿐 아니라, 매년 국가자산 부문 추계와 지자체 세부담분석 등에도 활용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실현에 이바지한 점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③ 주요사업별 비계량적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표준지기본조사제도 유지 및 개선, 유사가격권 연구 실무적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공시제도화, 지자체 공시가격 담당 공무원과의 의사소통강화, 조사기법 첨단화 및 가격산정 자동화, 정보공유성과가시화, 공공 DB 민간활용도 제고의 비계량적 성과는 적정하게 달성되었다. 다만 계획단계의 비계량 성과목표는 현재 기관의 역량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준의 목표로 도전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중장기 계획에 따른 객관적이고 도전적인 계량/비계량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조직의 업무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부동산 조사·평가·통계 전문기관의 비전 달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의 공동주택 가격 조사와 관련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사진 촬영은 가격 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나 감사원 감사에서 출장서면 기록의 미비, 사진 기록 누락, 업무 관련 서류 누락 등으로 실제 가격조사 업무가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및 기타 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하락시켰다. 그러나 지적과 관련된 조치로써 전자출장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관련 서류를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모바일 현장조사 앱을 고도화 하여 앱 내에서 사진 촬영 시 출장기록이 자동으로 입력되게 하는 등 문제점을 즉시 개선함으로써, 지적·권고사항에 대한 원활한 환류 활동을 위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실거래기반 공시제도 도입기반 확립 성과목표에 대한 2015년 일원화된 가격 산정체계 도입을 기반으로 환류 활동을 수행하여 2016년 선진 통계기법을 활용한 가격산정모형 개발이라는 환류계획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공시제도 선진화를 위하여 과세추정가액의 정확성 및 분산도 분석, 공정가치에 기반한 과세가치 산정의 선진기법 벤치마킹을 수행하였고, 가격산정모형 구축을 위하여 유사가격권 도입 및 표준지 분포 최적화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등 가격산정모형 개발을 위한 노력을 현재 수행하고 있어, 미흡한 성과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환류 활동의 결과로는 다소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어, 향후 적정한 개선대책 수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거래기반 공시제도 도입기반 확립 성과지표의 환류 계획 개선이 요구된다.

(4) 보상수탁사업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기관은 중장기 계획과 전략목표에 근거하여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전략 과제를 바탕으로 신규수주 확대, 전문역량 강화, 고객서비스 강화라는 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2014년도 주요 목표였던 공공시스템 활용률, 평균민원처리 기간, 평균정산기간, 1인당 수익 지표는 성과 달성으로 인하여 신규 지표로 대체하였다.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보상수탁사업시장의 환경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새롭게 정의된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SMART 분석을 통하여 유지 3건, 신규 3건, 개선 1건의 균형적인 성과지표를 도출한 기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보상수탁 시장의 규모가 2009년 35조 원에서 2014년 11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경쟁기관이 증가(8→21)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규수주 5% 확대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하였다. 다만, 장기적으로 언제든지 발생 가능한 부동산경기 침체는 경쟁기관간의 과다경쟁, 보상수탁사업의 수익성 약화 등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단순한 목표 달성수준을 계획하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서 벗어나 시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따라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적절한 시장 모니터링 분석·수행,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노하우 및 장기적인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글로벌 벤치마킹 대상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위기관리 능력 배양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경쟁이 심화되고 보상수탁 시장에서 원활한 수익실현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수주전략을 수립하였고, 대규모 자금이 일시에 투입되는 민간자본사업 수주를 위하여 고객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철저한 관리 및 우호관계 유지를 통한 장기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해안 어업보상수탁 외에 하천·호수 등의 수탁대상의 다양화 및 토지·어업보상의 일괄수주전략을 새롭게 도입하여 보상수탁의 수주경쟁력을 확보하고, 보상관리시스템(CM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대외적 신뢰성을 향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를 마련함과 동시에 전년도 보다 높은 실적을 달성한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보상금 수령자에 대하여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조회하여 체납 여부를 확인 후에 보상금 지급을 수행하여야 했음에도 2011년부터 감사원 감사 시기까지의 132개 사업 중 130개 사업에 대하여 국세청 체납자를 확인하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하여, 보상수탁사업의 양적 확대에 비하여 질적인 성장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체 보상대상자 중 83명이 약 36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보상금 지급액이 약 7억 원에 달하고 이 중 42%가 결손처리 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하여야 하는 기관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았다.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2014년 9월 행정자치부로부터 국세체납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허가 받아 활용하여 보상금 지급전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향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누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상평가에 대한 엄정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상수탁사업의 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기관은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을 통해 보상대상 지역의 지형물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대규모 지역에서 인력의 현장방문만으로는 모든 지형물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효율적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하고, 현장조사 후 조사되지 않은 지형물로 인하여 관련 민원 발생 시 현장을 재조사하여야 하는 불편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된다. 특히 현장조사 앱을 통한 사업기간의 단축, 출장업무 처리, 건축물·수목 등의 지형물을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전체 민원의 4%를 차지하던 현장 관련 민원의 감소와 스마트 현장조사를 통한 1일 조사 물량 2배 확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국내 보상수탁시장을 선도하고 세계적인 부동산 기관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장기적 비전을 위해 전 세계의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용지협회(IRWA)를 통하여 해외 보상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해외기관과의 교류 및 해외 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된다. 특히 단순한 회의 참석자로서 회원국들과의 적극적인 자료 교환 및 의견개진 등이 불가능한 초청기관의 역할에서 어업보상 수탁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발표함으로써 회원국의 지위를 획득하고 의견 개진을 통한 영향력을 확대하게 된 것은 기관의 꾸준한 전문성 강화 노력을 인정받는 것이라 판단된다.

－ 최고의 보상전문기관 자리를 유지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보상업무에 필요한 각종 법률 및 실무와 관련된 다양한 과목의 연수 지원, 토지보상 및 수용업무 연찬회, 토지보상 제도개선회의 참여 유도, 외부적으로 보상기준연구회, 보상사업본부 워크숍, 보상수탁 실무과정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7명의 보상관리사 및 외부전문가 3인을 영입하는 등 다양한 보상업무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나, 기관이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학위취득 장려와 관련된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 실무 위주의 전문가 확보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실무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노력과 함께 세계적인 보상전문기관으로의 R&D 역량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학위취득 장려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 기관은 고객의 보상수탁 업무 이해도 향상 및 각종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각 보상단계마다 SMS 문자를 공지하고, 고객의 무지로 인한 가산세 부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보상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운영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된다. 특히 민원회신문의 표준양식을 개발·공유하여 각 담당자가 효율적으로 민원에 대응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상대상자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 시기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보상수탁업무 대상자에게는 청렴 ARS 및 고객의 소리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특히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네이버지식in 활동을 수행하는 등 실직적인 고객과의 접점을 만들고 민원관리를 철저히 수행한 기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③ 주요사업별 비계량적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계획단계에서 비계량 지표가 설정되지 않았으며, 설정된 계량 지표를 바탕으

로 비계량적 성과를 평가한다면 모든 계량 지표의 성과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계량 성과지표 중 보상관리사 비율 등의 지표는 전문역량 강화를 목표로 설정된 지표로서 양적인 부분은 평가할 수 있으나 질적인 부분은 평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실무적인 측면에서 전문가집단을 구축하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적절한 성과이나 세계적인 보상전문기관으로의 발돋움을 위한 비계량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부분과 함께 질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 및 실적이 요구되어 질 것이다. 보상전문기관으로의 전문역량 강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질적, 양적 동반 성장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보상수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P-D-C-A 사업 운영을 통한 환류 활동으로 긍정적인 성과는 영업전략회의 및 워크숍을 통하여 공유하고, 미흡사항은 다양한 개선 전략을 통하여 수정·조치해 나가면서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즉각적인 보상 전문인력 충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정된 인적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과감한 조직개편을 통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보여주었고, 미래경쟁우위요소를 발굴하도록 지적인 내부 경영평가의 지적을 연찬회, 보상기준연구회, 보상사업본부 워크숍 등의 전문 회의 제도를 도입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등 적극적인 환류 활동을 통하여 감사원 및 국정감사 등의 외부 지적사항 제로를 달성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5) 주요사업별 범주의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은 적정한가?

① 기관의 설립목적(임무)과의 연계성 및 반영 정도

- 기관은 정부의 부동산감정시장에 대한 정책 변경 및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정책, 기관장의 경영방침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설립목적, 세계 최고의 부동산 조사·평가·통계 전문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하여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우선순위 분석을 통하여 핵심 전략과제를

선정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된다. 이를 통해 실거래검증 가격정보 활용성과, GIS기반 정보구축 향상도, 공적평가 유치 실적, 공적평가 정확도 향상도, 부동산 가격공시 공공데이터 활용성과, 보상협의를 향상도에 대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다. 기관이 설정한 주요사업 지표의 구성체계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확한 조사·평가·통계 전문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정립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공적평가 정확성 향상도 지표는 공적감정평가에 관한 기관의 역할이 재조정되어 지도감독기능을 가지게 됨으로써, 감정평가 세부평가기준 정립 등 감정평가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민간감정평가 업계와의 갈등 원인으로 작용하여 시장의 불안정과 국민의 감정평가 시장에 대한 신뢰도의 하락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외부인원에 대한 검증체계를 구축하는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② 주요사업별 계량지표별 목표 수준 설정의 적정성

- 기관은 전체 계량지표에 대하여 목표부여(편차) 방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거 실적을 기초로 목표수준을 설정하였다. 실거래 가격정보 활용 성과지표의 경우 가격조사업무, 정밀조사 대상선정 업무, 가격정보 건수의 3가지 사업을 실적으로 인정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공공데이터 활용성과 지표의 경우에도 가격정보 이용건수를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관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방, 앞집 등 민간, 공공기관 협업 등 전년도와 비교하여 이용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시장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기관의 전략목표 수립에 따른 활용건수 실적 등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③ 지표구성의 체계화, 도전적 목표 설정 등 지표 개선 노력의 적정성

- 기관은 4개의 주요사업에 대한 6개의 계량지표를 설정하여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모든 계량지표는 목표부여(편차) 방법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지표의 특성상 최고목표를 달성은 외적 요인의 영향이 크게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으로 4개의 계량지표에 대하여 만점을 득점하는 성과를 달성한 노력은 인정된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공시 공공데이터 활용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산식의 경우, 부동산가격정보 이용건수와 투입예산

이 산식에 사용되며, 부동산가격정보 이용건수는 정보 구축량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어 과표 산정, 정책 수립 등의 이용내역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투입예산은 부동산 가격 공시 시스템의 구축으로 인하여 증가량이 크지 않아 정확한 실적을 나타내는 지표로 대표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실제 사용된 데이터에 부합하도록 지표명의 변경 또는 공공데이터 활용성과를 포함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기관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C”로 평가한다.

2 부동산 조사통계사업

(1) 실거래검증 가격정보 활용 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난이도 계수	득 점
실거래검증 가격정보 활용 건수 / 가격정보 수집 단지수	목표부여 (편차)	최고 : 0.101 최저 : 0.062	0.108	100.000	6	1.0	6.000

나. 평가내용

- 주택거래 실거래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수집한 실거래 가격정보의 활용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부적정거래건 정밀검증을 위한 정밀조사 대상선정 업무 건수를 목표부여(편차)로 평가하였다.
- 2015년도 실거래검증 가격정보 활용성과 실적은 가격정보 수집단지수 대비 0.108로 최고 목표인 0.101을 초과 달성하여 6.000점을 득점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실거래검증 가격정보 활용건수는 혁신도시 등의 가격조사업무, 부적정거래건 정밀검증을 위한 정밀조사 업무 시행 등 활용건수가 증가됨에 따라 전년 대비 약 35.4%한 1,300,693건을 달성하였다.
- 가격정보 수집단지수는 2014년 11,756,149단지에서 2015년 약 2.4% 증가한 12,041,236단지를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실거래검증 가격정보 활용건수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증가하다가 2012년에 감소하였으며,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가격정보 수집 단지수는 신축단지에 대한 가격정보 수집이 이루어지면서 2009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준공 물량이 감소하면서 증가폭은 감소하였다

(2) GIS기반 정보구축 향상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난이도 계수	득 점
순 레이어(Layer) 구축량/투입예산	목표부여 (편차)	최고 : 8.442 최저 : 2.519	9.106	100.000	6	0.9	5.400

나. 평가내용

- GIS기반 정보구축 향상도는 GIS시스템의 근간 단위인 레이어수를 측정하여 부동산 조사통계 등의 업무 활용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투입예산 대비 순 레이어(Layer) 구축량을 목표부여(편차)로 평가하였다.
- 2015년도 GIS기반 정보구축 향상도 실적은 투입예산 대비 9.106으로 최고 목표인 8.442를 초과 달성하여 5.400점을 득점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해 주택동향의 표본 수가 증가하여 해당 표본의 GIS 레이어 등을 추가로 생성한 결과, 전년대비 약 75% 증가한 6,679건을 달성하였다.
- 투입예산은 GIS 레이어를 추가로 구축하고 전산시스템 개선에 투자를 한 결과 전년대비 5.4% 증가한 733.5백만원을 기록하였다.

라. 추세분석

- GIS상에서 가격, 특성 등 다양한 데이터를 지역별, 블록별 수준, 격차 등의 요인을 이용하여 레이어를 구축하고 가격균형 검증 및 정밀 데이터분석에 활용한 결과 따라 GIS 레이어 구축량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2014년 순 레이어 구축량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하여 2015년의 증가 폭은 감소하였다.
- 투입예산은 신규업무 확대 등으로 인하여 2009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5년에는 GIS 레이어 추가 구축, 전산 시스템 개선 등으로 증가하였다.

3 공적평가사업

(1) 공적평가 유치 실적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난이도 계수	득 점
공적평가 유치 실적 (금액)	목표부여 (편차)	최고 : 47,088 최저 : 38,347	49,060	100.000	5	1.0	5.000

나. 평가내용

- 공적평가 유치 실적은 홍보활동 및 품질향상을 통한 공적 감정평가에 대한 유치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공적평가 유치실적을 목표부여(편차)로 평가하였다.
- 2015년도 공적평가 유치 실적은 49,060백만원으로 최고 목표인 47,088백만원을 초과 달성하여 5점을 득점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표본평가 및 담보평가, 보상평가의 실적이 각각 전년대비 123.4%, 32.6%, 19.6%로 증가하여 49,060백만원을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공적평가 유치실적은 2013년에 2012년 대비 감소하였다가 2014년 이후 기관별 맞춤형 지원 전략을 시행한 결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 공적평가 정확성 향상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난이도 계수	득 점
보완 및 시정건수/ 공적평가 처리건수	목표부여 (편차)	최고 : 0.0042 최저 : 0.0166	0.0053	92.689	6	1.0	5.561

나. 평가내용

- 공적평가 정확성 향상도는 공적평가 처리건수 중 외부의 요청에 의한 보완 및 시정건수의 하향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공적평가 처리건수 대비 보완 및 시정 건수를 목표부여(편차)로 평가하였다.
- 2015년도 공적평가 정확성 향상도 실적은 공적평가 처리건수당 0.0053건으로 최고 목표인 0.0042건에 미달하여 5.561점을 득점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담보시세조사지원시스템 구축, 평가 유의사항 매뉴얼 제작 및 지속적 업데이트, 감정평가 세부평가기준 정립 등 시스템 및 관리 개선을 위한 활동결과, 보완 및 시정 건수는 전년대비 21.9% 감소한 57건을 달성하였다.
- 기관별 맞춤형 지원 전략 시행, 서면자료 감정 처리기일 관리 시스템 도입, 정책모기지 업무 신규유치 등의 활동결과, 공적평가 처리건수는 전년대비 52.9% 증가한 10,753건을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주요고객별 맞춤 서비스 지원 및 평가서 검토 등 시스템 및 관리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보완 및 시정건수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4] 가격공시사업

(1) 부동산 가격공시 공공데이터 활용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난이도 계수	득 점
부동산가격정보 이용건수 /투입예산	목표부여 (편차)	최고치 : 0.803 최저치 : 0.308	0.824	100.000	7	0.9	6.300

나. 평가내용

- 공정 과세를 통한 안정적 세입기반 마련 및 외부 공공데이터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주거용부동산 및 비주거용부동산의 핵심정보 등을 전산시스템에 구축하여 활용한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투입예산 대비 부동산 가격정보 이용건수를 목표부여(편차)로 평가하였다.
- 2015년도 부동산 가격공시 공공데이터 활용성과 실적은 투입예산 대비 0.824건으로 최고 목표인 0.803건을 초과 달성하여 6.300점을 득점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2017년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을 목표로 전산시스템에 부동산 정보를 중점 구축하고 활용한 결과, 부동산 가격정보 이용건수는 전년 대비 57.6% 증가한 2,670,098건을 달성하였다.
- 투입예산은 신규 사업 도입 대비와 DB 구축량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한 3,238.9백만원을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부동산가격정보 이용건수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을 목표로 2014년부터 증가폭이 증가하였다.

- 투입예산은 2009년 이후 감소와 증가를 반복적으로 유지하였고, 신규 사업과 DB 구축량 증가로 2015년 다시 증가하였다.

5 보상수탁사업

(1) 보상 협의율 향상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난이도 계수	득 점
당해연도 보상협의율 누적비율 - 전년도 보상협의율 누적비율	목표부여 (편차)	최고 : 0.058 최저 : 0.012	0.050	85.248	5	0.9	3.836

나. 평가내용

- 보상수탁사업 서비스 향상 노력에 따른 보상협의율 향상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보상협의율 누적비율 향상도를 목표부여(편차)로 평가하였다.
- 2015년도 보상협의율 향상도 실적은 0.050으로 최고 목표인 0.058에 미달하여 3.836점을 득점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SMS 서비스를 활용한 보상안내서비스 및 현지 사무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보상협의율 누적비율이 전년대비 약 5.4% 증가한 0.969를 달성하였다.
- 보상금 집행액 및 대상액은 전년대비 각각 10.3%, 4.7% 증가한 10,714,582백만원과 11,058,435백만원을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고객서비스 강화와 서비스제공 방법의 개선 노력을 통하여 2009년 이후 계속해서 보상협의율 누적비율이 상승하고 있다.